

# 도쿄올림픽 출전 임성재·김시우 “메달 꼭 따고 싶다”



### 두번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는 기회, 욕심 난다 최선 다해 대한민국 남자골프 기록 남기고 싶어

2020 도쿄올림픽 남자골프에 태극마크를 달고 출전하는 임성재(23)와 김시우(26)가 “꼭 메달을 따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임성재는 15일 미국프로골프(PGA) 투어가 공개한 인터뷰에서 첫 올림픽 출전에 대해 “너무 기쁘고, 정말 기대된다”며 “대한민국 대표로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꼭 금메달이나 메달을 꼭 따겠다”고 의욕을 보였다.

골프는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대회에서 올림픽에 복귀했다. 남자는 112년 만, 여자는 116년 만의 올림픽 복귀다.

한국 선수는 여자 골프에서 박인비(33)가 리우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걸었지만, 남자 골프에서는

아직 올림픽 메달이 없다.

임성재는 “아직 대한민국 남자 선수가 메달을 딴 적은 없다”며 “내가 대한민국 남자 선수로서 한 번 골프 종목에서 메달을 따서 기록에 남았으면 정말 좋겠다”고 기대했다.

만약 도쿄올림픽에서 메달을 딴다면 “커리어에서 제일 엄청난 기록일 것”이라며 “평생 누구나 나 같 수 있는 올림픽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욕심이 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올림픽 출전이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수 있다”며 “정말 이 기회를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게 내 각오”라고 힘줘 말했다.

또 “메달을 따는 게 쉽지 않지만, 땀만 흘리면 꼭 국 위선양을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시우도 같은 마음이다. 김시우는 “어렵게 출전

하는 만큼, 의미가 있으려면 메달을 꼭 따야 할 것 같다. 컨디션 조절 잘해서 메달을 꼭 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올림픽도 다른 대회와 똑같이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임하겠다면서 “한국을 대표해서 출전하는 만큼 스스로 자세도 낮추면서 한국의 자부심이 생기게 어른스럽게 플레이할 생각”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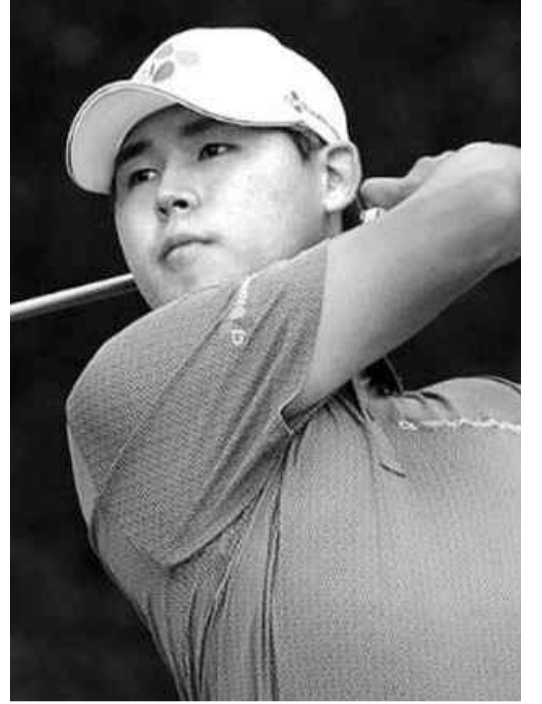
김시우는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축구 대표팀의 동메달을 떠올리며 자신도 좋은 성적을 내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

그는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런던올림픽에서 축구대표팀이 모든 선수가 최선을 다해 메달을 획득한 것”이라며 “이제 골프가 정식 종목이 됐으니 골프에서 좋은 성적 내서 좋은 기억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김시우는 “개인이 아니고 한국을 대표해서 올림픽에 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메달을 딴다면 기쁠 것 같다”며 “한국을 대표해서 꼭 메달을 따고 싶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임성재



김시우



한국 선수단 숙소에 걸린 태극기와 응원 문구. 도쿄올림픽 개막을 8일 앞둔 15일 도쿄 하루미 지역 올림픽선수촌의 한국 선수단 숙소에 태극기와 팀코리아 깃발이 내걸려 있다. /연합뉴스

## 코로나 우려에...선수가 직접 메달 목에 건다

23일 개막하는 2020 도쿄올림픽에서는 메달리스트가 직접 메달을 자신의 목에 걸게 된다.

AP통신은 15일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의 말을 인용해 “이번 올림픽에서 메달 수여를 맡은 사람은 메달이 놓인 정반을 선수에게 전달하고, 선수가 직접 메달을 들어 걸게 된다”고 보도했다.

이전까지 시상자는 메달을 직접 선수 목에 걸어줬고, 화환이나 기념품도 함께 선물하는 것이 관례였지만 이번 대회에는 선수가 직접 메달을 착용해야 한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다. 시상식 이전에 메달을 정반에 놓는 사람도 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AP통신은 “이는 11일 끝난 유럽축구선수권대

회 시상식과는 다른 모습”이라고 비교했다.

당시 유럽축구연맹(UEFA) 알렉산더 세페린 회장이 마스크 없이 우승한 이탈리아 선수들에게 메달을 걸어주고, 트로피 전달과 악수까지 했다는 것이다.

반면 바흐 위원장은 “이번 올림픽에서 메달 수여식에서 악수나 포옹은 금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시상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지난해 미국프로농구(NBA) 시상식에서도 우승한 LA 레이커스 선수단이 트로피를 직접 챙겼으며 주요 골프, 테니스 메이저 대회에서도 우승자에게 직접 트로피를 들게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연합뉴스

## 미들턴 40점...밀워키 NBA 챔피언 2패 뒤 2연승

### 4차전 피닉스에 109-103 승

미국프로농구(NBA) 밀워키 벅스가 홈에서 피닉스 선스에 2연승을 거두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밀워키는 15일(한국시간)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의 피셔스 포럼에서 열린 피닉스와 2020-2021 NBA 챔피언결정전 4차전 홈 경기에서 109-103으로 이겼다.

1, 2차전 원정에서 연패한 밀워키는 홈에서 치른 3, 4차전에서 모두 승리해 시리즈 전적 2승 2패를 만들었다.

이로써 1971년 이후 50년 만에 챔피언 자리를 노리는 밀워키와 창단 첫 우승에 도전하는 피닉스의 대결은 최소 6차전까지 이어지게 됐다.

5차전은 18일 피닉스 홈에서, 6차전은 21일 밀워키 홈구장에서 열린다.

밀워키에서는 이날 크리스 미들턴이 40득점 6리바운드로 맹활약하고, 아리스 아데토쿤보가 26

득점 14리바운드(8어시스트 3스틸 2블록슛)로 더블더블을 작성해 승리를 견인했다.

브룩 로페스(14득점)와 즈루 홀리데이(13득점), 팻 코너너(11득점) 등도 두 자릿수 득점을 올렸다.

반면 피닉스는 데빈 부커가 42득점으로 ‘웬만쇼’를 펼쳤으나 제이 크라우더가 15득점 8리바운드, 크리스 폴과 캐머런 존슨이 나란히 10득점에 그쳐 충분히 힘을 받지 못했다.

이날 경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팽팽한 접전 양상이었다.

1쿼터에는 피닉스가 23-20으로 약간 앞섰으나, 2쿼터에서는 밀워키가 동점을 만들었다.

피닉스가 부커와 페인을 중심으로 반격에 나서며 리드를 되찾는 듯했지만, 49-52로 뒤처진 밀워키가 쿼터 종료 25.4초 전 미들턴의 외곽슛으로 균형을 맞춘 채 전반을 마쳤다.

3쿼터에서도 피닉스가 다시 근소한 차이로 앞서고 밀워키가 끈질기게 추격하는 흐름이 이어졌다.

쿼터 종료 2분 30초 전 밀워키는 로페스의 레이업에 힘입어 73-73으로 따라잡았다.

그러자 피닉스는 부커가 득점에 이어 상대 반칙을 끌어내 4점을 더하고, 존슨의 블록슛에 이어 캐머런 페인의 골킥으로 3점포로 80-73까지 틈을 벌렸다.

피닉스는 82-76으로 6점 차 리드를 지킨 채 4쿼터에 들어섰다.

하지만 쿼터 초반 피닉스는 부커가 5번째 반칙을 범해 벤치로 잠시 물러나는 위기를 맞았고, 아데토쿤보에게 연속 덩크를 허용해 90-88까지 쫓기며 흔들렸다.

승부는 결국 경기 막판에 갈렸다. 뒷심을 발휘한 밀워키가 웃었다.

밀워키는 경기 종료 3분 8초 전 코너너의 3점포가 림을 갈라 97-95로 흐름을 뒤집었고, 이후 미들턴이 내리 10점을 올려 승기를 굳혔다.

피닉스는 32.1초를 남기고 폴의 결정적인 턴오버가 나온 게 뼈아팠다. /연합뉴스

## 한달 전 심장수술 받고도 도쿄 질주 준비 남아공 철인3종 선수 머리 ‘위대한 도전’

한 달 전 심장 질환으로 수술을 받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철인3종 선수가 2020 도쿄올림픽 출전을 앞두고 있다.

도쿄올림픽 공식 정보 사이트인 ‘마이인포’를 보면 남아공 철인3종 선수인 리처드 머리(32·사진)는 심장 질환으로 지난달 수술을 받았다.

지난해 말 수영 훈련을 하던 중 심박수가 급격히 늘어난 걸 인지했는데, 불규칙한 심장 박동을 일으키는 ‘심방세동’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심할 때는 분당 심박수가 160~180회에 달했다.

2012년 런던올림픽 남자부 17위,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4위에 오른 뒤 세 번째 올림픽 도전을 앞둔 가운데 큰 장애물을 만난 것이다.

하지만 머리는 지난달 심장 박동을 정상으로 돌리는 수술을 받았고, 지난달 말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운동을 시작해 도쿄행을 준비하고 있다.

머리는 “수술을 받으면 2주 뒤부터는 운동을 하는 데 위험이 없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2016년 리우 올림픽을 앞두고도 4개월 전 세골 골절이라는 악재를 만났으나 당당히 출전해 메달 문턱까지 갔던 그는 이번엔 혼신 계주 경기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머리는 “그동안 부상과 골절, 사고들을 겪어왔지만, 지금 보니 그런 것들은 아주 작아 보인다”며 “도쿄에 가서 올림픽에 출전하는 자체로도 나에게 하나의 승리가 될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철인 3종은 수영과 사이클, 달리기 세 종목을 섞지 않고 연달아 치르는 종목으로, 도쿄 올림픽 경기는 오는 26~31일 열린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총장로관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즐거움  
문화  
산책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블랙 위도우
2관	블랙 위도우
3관	이스케이프 룸 2: 노 웨이 아웃 스페이스 캠프: 새로운 시대
4관	랑중
5관	블랙 위도우
6관	랑중
9관	랑중, 콰이어트 플레이스 2
7관 씨네커튼	크루엘라, 콰이어트 플레이스 2, 오필리아, 견저링3: 악마가 시켰다
8관 씨네커튼	꽃다발 같은 사랑을 했다, 발신제한 견저링3: 악마가 시켰다

GAC 11시 음악산책 4  
차진엽의 지구 모자이크화  
일시: 2021. 07. 28.(수) 11:00  
장소: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062-613-8232

GAC기획공연 포시즌  
박수원 보내다: 독주회 II  
원재연 피아노 리사이틀  
일시: 2021. 08. 21.(토) 19:30  
장소: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062-613-8235